

지역 소식 통

정읍시, 내년 노인일자리 400명 늘어 7237개 창출

정읍시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내년도 노인일자리 배정 인원을 올해보다 400명 늘린 7237명으로 확정하고,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참여자를 집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모집 기간은 수행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희망하는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모집 분야별로 살펴보면 학교 급식 봉사 등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공익활동’에 가장 많은 4886명을 배정했으며, 공공기관 행정업무 등을 돕는 ‘역량활용’에 2000명을 선발한다. 또한 ‘시니어 웰빙마을(도시락 제조·판매)’ 등 공동체사업 301명, 취업지원 사업에 100명을 모집해 어르신들의 전문성을 살릴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유형별로 상이하다. 공익활동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가 대상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2026년 노인 일자리 대폭 확대 추진

부안군은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충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총 5317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은 총 234억원으로, 지난해 198억원보다 2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사업 유형별 인원은 △공익활동형 3417명 △노인역량활용형 1200명 △공동체 사업단 350명 △취업지원 및 시니어인턴십 등 350명이다.

내년에는 어르신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린 노인역량활용형의 일자리가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생활안전관리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안내 지원, 응급안전인식자킴이 등 신규 직무가 부안군에 새롭게 도입되어, 지역내 공공안전과 복지서비스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미래전략산업 · 지역경제 활력 집중’

고창군, 내년도 예산 8802억원 편성...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 목표

고창군이 8802억원 규모로 편성된 2026년도 예산안을 고창군의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전년대비 3.62%인 308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94억원, 특별회계는 14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2026년도 예산안은 철저한 세출 구조조정과 불필요한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을 목표로 편성했다. 특히 서해안권 관광개발사업을 비롯한 민선8기 전략사업과 지역화폐 발행 등 민생경제 활력에 집중했다.

먼저, 문화관광 · 교육분야로는 △노

을 · 생태갯벌플랫폼 조성사업(56억원) △농촌관광 스테마을 조성사업(24억원) △고창읍성 풍류체험시설 조성사업(16억원) △서해안 선셋 드라이브 명소화 사업(60억원) 등이다.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고창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61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27억원)이 포함됐다.

사회복지에는 △고창군 결혼장려금(1억원)을 편성하여 당초 100만원이던 결혼장려금을 2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보건분야에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및 백일해 무료백신(0.6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촘촘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질서와 안전분야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35억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118억원) △급경사지 정비사업(10억원)이 포함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2026년은 민선8기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추진중인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을 전략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전 분야에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중 · 고교 교과서 수록

부안군, 지구과학 · 여행지리 교과서 반영... 전국 학생 지오교육 활성화 기대

부안군은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2026년부터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중 · 고등학교 교과서에 정식으로 수록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새 교과서에는 지질공원 관련 단원이 신설되었으며 그 대표 사례로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소개된다.

새 교육과정은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26년 고등학교 2학년 2027년 중 · 고교 전 학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지구과학 교과서에는 ‘국가지질공원’ 단원이, 여행지리 교과서에는 ‘지오투어리즘’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며 이 과정에서 부안의 채석강의 형성 과정, 해안 지형의 가치와 경관 등이 주요 학습 사례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채석강, 적벽강, 대월습곡 등 다양한 지질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교육적인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교과서 수록으로 학생들은 지

질공원의 개념과 지구과학을 교실과 현장을 연계한 체험 중심 학습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학교 교육과 연계한 지질 체험 학습 프로그램 개발, 교육자료 확충, 지질관광 협력 기반 강화 등을 통해 국내 대표 지오교육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이 교과서에 정식 반영된 것은 지역의 국제적 가치가 교육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질공원의 개념과 지구과학을 교실과 현장을 연계한 체험 중심 학습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학교 교육과 연계한 지질 체험 학습 프로그램 개발, 교육자료 확충, 지질관광 협력 기반 강화 등을 통해 국내 대표 지오교육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이 교과서에 정식 반영된 것은 지역의 국제적 가치가 교육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시니어 주치의제로 행안부 장관상 수상



공중보건의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 우려 속에서 정읍시가 내놓은 해법이 빛을 발했다.

정읍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니어 의사 활용 지역주치의제도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하며 그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번 수상은 은퇴한 시니어 의사의 풍부한 임상 경험을 지역 의료 안전망으로 연결해 의료 취약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지켜낸 혁신적인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국민의 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행정 혁신을 주도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수상 지자체는 엄격한 서면 심사와 현장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시는 갈수록 줄어드는 공중보건의사수와 심화되는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니어 의사를 지역 주치의로 배치하는 새로운 모델

을 구축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의사를 배치하는 것을 넘어, 고령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건강 상담과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점이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이끌어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수상은 정읍시가 직면한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누구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정읍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주목’

고창군, 129억원들여 1500여곳 설치 완료

고창군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을 통해 최근 5년간(2022~2026년)간 총사업비 129억원을 투입해 1500여 개소에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 태양열 · 지열 등) 운영하며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국비 12억3000만원을 확보해 약 430개소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주택과 건물 등에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 설비를 융합해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에너지원에 따라 설치비의 최대 88%까지 지원하고 군민 자부담률을 약 20% 이하 수준으로 낮춰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고창군은 읍 · 면 전역을 대상으로 태양광(주택 · 건물), 태양열, 지열 등 다양한 유형의 설비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지난 5년간 축적된 실적과 기술적 타당성,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평가를 받으며 재생에너지 보급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구축된 재생에너지 기반은 향후 기업 · 공공기관 등 RE100 전환 지원, 지역 탄소중립 실천, 에너지 자립률 제고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될 수 있어 지역 에너지 전환의 핵심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빈집 귀농인 보금자리 등으로 재탄생

오랫동안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우려를 낳았던 정읍 지역 빈집들이 시민을 위한 주거 공간과 주차장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정읍시는 올해 8억 4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해 온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시는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과 도시경관 개선을 목표로 추진한 ‘빈집재생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빈집 정비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빈집 정비 등 경관 개선 △특정 빈집 정비 등 총 4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총 85개소의 빈집이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시는 단순한 철거 방식을 넘어 빈집의 상태와 입지에 따라 맞춤형 정

비를 진행해 활용도를 높였다. 상태가 양호한 빈집 2개소는 리모델링을 거쳐 귀농 · 귀촌인에게 4년간 무상으로 임대한다. 이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철거가 필요한 18개소는 건물을 헐어낸 뒤 그 자리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했다. 조성된 주차장은 3년간 무상으로 개방돼 도심과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붕괴 위험이 있거나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노후 빈집 58개소에 대한 철거 작업을 완료해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했다. 시는 아직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모든 공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동절기 재해대책 상황실 본격 가동

정읍시가 겨울철 매서운 한파와 폭설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내년 2월 말까지 ‘동절기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상황실은 기상 악화 시 신속하게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 접수와 지원을 담당하며, 농가와 긴밀한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시는 재해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데 주력했다. 지난해 폭설로 피해를 본 경향이 있는 축사 43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반은 축사 지붕과 지지대의 안전성을 살피고 보온 · 단열 상태와 전기 · 난방 설비의 이상 유무를 꼼꼼

히 확인하며 재발 방지에 힘썼다.

이와 더불어 농가 스스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도 강화했다. 시는 축사 보온 시설 보완과 난방기구 안전 점검을 독려하는 한편, 난방비 절감 지원 사업을 추진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폭설이나 한파로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 부담금을 지원해 농가 경영 안정을 돕고 있다.

또한 ‘겨울철 재해예방 및 행동요령’ 리플렛 2000부를 제작해 농가에 전달했다. 해당 리플렛에는 가축 보온 관리법, 사료 급여 요령, 급수기 등과 예방 등 자율적인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